



지난 3일(한국시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평점 7점을 받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드리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伊 넘어 베이징 간다

오늘 여자하키 올림픽 출전권 놓고 한판 승부

여자하키 대표팀이 캐나다를 물리치고 5전 전승을 거둬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유덕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대회 5일째 예선 풀리그 최종전에서 캐나다를 4-0으로 물리쳤다. 전반 16분 김다래(21)의 선제골로 앞서간 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에 천슬기(19·이상인재대)가 한 골을 보태 전반을 2-0으로 마쳤다. 세계랭킹 9위 한국은 후반 9분에 김다래가 추가골, 20분에는 김성희(25·아산시청)가 추가골을 터뜨려 4-0 완승을 거뒀다. 예선 5경기를 치르며 29골을 넣고 실점은 1점으로 막은 한국은 5일 오전 8시5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이탈리아(19위)와 결승전을 치른다. 이탈리아는 이날 경기 전까지 2승1무1패로 아일랜드(3승1패)에 뒤져 있었으나 맞대결에서 2-0으로 이겨 극적으로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예선에서 만나 5-0으로 여유있게 이겼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성화 中 국내 봉송 돌입

티베트사태 등을 둘러싼 반중국 시위로 험난한 해외봉송 일정을 마친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4일 중국 국내봉송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날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해변 휴양지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亚)에서 수천명의 환영인파가 오성홍기를 흔들며 가운데 올림픽 성화 국내봉송을 개시했다. 국내봉송 1호 주자로 선정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챔피언 양양(楊揚)은 삼엄한 경비 속에 올림픽 성화를 높이 치켜들고 국내봉송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002년 중국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조국의 품에 안겨준 양양은 "중국 본토에서 첫 주자로 선정돼 흥분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양양은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여자 500m와 1천m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지금까지 59번이나 세계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2006년 8월 은퇴했다. 모두 208명의 성화 봉송자들은 산야에서 30.09km를 달리며 국내봉송 첫날 일정을 마치고 5일에는 우즈산, 6일에는 하이난성 성도인 하이커우(海口)에서 봉송이 거행된다. 올림픽 성화는 중국 전국 113개 도시를 97일 동안 순회하며 개막식 이틀 전인 6일 베이징에 입성해 이틀간 봉송 절차를 거쳐 8월8일 개막식에서 성대한 불을 밝히게 된다. 성화 국내봉송 주자들은 체육계 스타와 인기 연예인, 소수민족 대표와 해외인사 등 모두 1만1천534명으로 매일 208명이 200m씩 달려 40~50km를 이동하게 된다. 지난 3월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환진 성화는 처음부터



해외 일정을 모두 마친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중국 국내 봉송이 4일 시작됐다. 이날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亚)에서 2002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챔피언 양양(楊揚)이 성화를 들고 환영인파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로 얼룩져 파리 봉송 도중 꺼지기도 했으며 서울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봉송 과정에서는 중국 당국의 철저한 통제와 보안 조치로 인해 해외에서처럼 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베레스트 정상 성화 봉송 강설로 차질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3일 강설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성화봉송 등반대는 최전방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6천500m 고지에서 날씨가 호전되길 기다리며 4일까지 이틀째 대기했다.

에베레스트산 8천848m 정상까지의 성화 운반은 비록 반(反)중국 시위로 얼룩지긴 했지만 지구촌 곳곳을 순회하는 성화봉송 행사에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장식하는 특별 이벤트로 마련됐다. 5월 11일 부감독은 "하지만 폭설이 등반로 개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맨유 '지성 선발=무패' 계속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다시 한번 공격과 수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펼쳐 팀 승리에 힘을 보탬 뒤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키스포르츠는 4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웨스트햄의 지난 3일 경기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61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박지성에 대해 '열심히 뛰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매겼다. 팀은 4-1로 대승,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한발 더 다가갔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박지성은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공격은 물론 수비까지 적극 가담한 뒤 후반 16분 라이언 깁스와 교체됐다.

팀 동료인 루이스 나니가 전반 37분 상대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전

61분 출전 4-1 대승 '한뫼'

'열심히 뛰었다' 평점 7점

팀 선수와 감정싸움을 벌이다 퇴장당한 이후 박지성은 공격보다 수비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맨유 선수 중 전반에만 두 골을 넣어 4-1 완승을 이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가장 높은 평점 9점을 얻은 반면 나니는 '어리석었다'는 평가와 함께 팀 내 최저인 평점 5점을 받았다.

한편 박지성은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팀이 무패행진을 거듭하고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며 겸손해 했다.

박지성은 이번 시즌 출전한 13경기(12승 1무)에서 모두 무패를 기록해 '선발출전=무패행진' 공식이 이어 나갔다.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그는 "운이 좋은 경기만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출전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팀이 좋은 경기를 펼칠 때 뛰었을 뿐"이라고 웃어 보였다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이긴 것에 대해선 "우승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본다"며 "남은 두 경기(정규리그 38라운드 및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5일(월)
▲2008 PGA 와코비아 챔피언십 FR (04:00·SBS골프·SBS스포츠)

▲2008 LPGA 셉그룹 챔피언십 FR (05:00·SBS골프)
▲2008 프로야구(두산:LG)(13:00·KBS1)(롯데:KIA)(13:40·SBS스포츠)(삼성:한화)(13:50·X-SPORTS)(SK:우리)(14:00·MBC ESPN)
▲삼성하우젠 2008 K리그(전북:수원)

(15:00·KBS N 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야쿠르트:요리우리)(18:20·MBC ESPN)
6일(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뉴캐슬:첼시)(00:00·MBC ESPN)

국내정상급 여성골퍼들이 "항공편라이니스티CC"에 모인다.

· **대회명** 2008년 KB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 **기간** 2008년 5월 9일(금) ~ 5월 11일(일) 3일간

· **주관** X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방송** 오후 1시 ~ 4시까지 (X-SPORTS 채널)

· **참가인원** 국내정상급 프로 & 120명

· **참상금** 2억원 (3월 54골 스트로크플레이)

· **대회장** 서울특별시 남산동 1-1 (남산골프장)

· **문의처** 02-550-1111